2차 가소제 시장 악화

옥탄올 가격 급등으로 … 수출확대로 활로 모색

PVC 경기의 회복 등 가소제 국제가격이 호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가소제시장은 공급과잉과 수입품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가소제 원료의 70%를 차지하는 옥탄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송원산업을 비롯한 한양 · 삼경화성 · 애경공업등 생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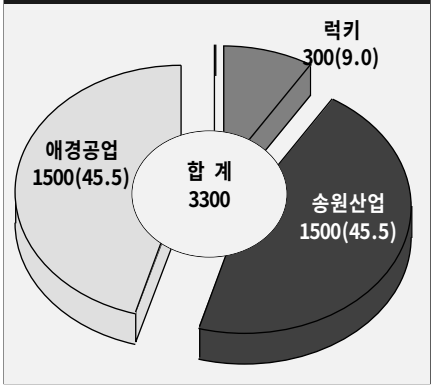
관련업계에 따르면 93년말 톤당 550달러이던 옥탄올이 현재 650달러까지 150달러 상승했으며 앞으로 700달러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가소제 생산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훽스트 화재와 5만톤 생산능력의 멕시코공장 폐쇄로 공급부족이 누적되어 온데다 최근 PVC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증가, 옥탄올의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중국, 대만산 가소제의 저가품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2차가소제인 DBP의 경우 국산 수출가격이 1250달러인 것에 비해 중국, 대만산은 900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TOTM 생산 현황(1993)(단위 : M/T, %)



한편, 이와같은 원료가 상승부담으로 TOTM, DOA, DOM등 2차 가소제는 아직 첨가에 대한 규격이 없어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에상돼 수요의 감소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2차가소제 생산기업은 송원산업을 비롯해 애경공업, 한양, 럭키 등이 있으며 국내 생산은 1만5000톤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 보면, 송원산업이 연간 TOTM 1500톤을 비롯해 DOA 1200톤, DOM 100톤, PE가소제 600톤 등 총 3400톤을 판매했다.

애경공업은 1500톤을 비롯 DOA 1200톤, DINA 100톤, DBP 95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럭키가 TOTM 300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가소제시장은 옥탄올 파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고 저가의 수입품 증가, 국내 가소제의 전반적 공급 광잉이 맞물려 시장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가소제의 경우 수요감소마저 우려되고 있어 생산기업들은 활로를 찾기 위해 수출확대를 적극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4/5/30>